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후 직업별 관점에서 본 태안지역사회의 삶의 질 문제

유현정, 이재은

이 연구는 직업군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태안 주민들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보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태안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난피해자들의 삶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자인 태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5회의 현장방문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과정을 거쳐 직업별로 10여개의 핵심범주를 추출하였으며, 기름유출사고를 바라보는 입장과 사고 후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가 직업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삶의 질, 태안지역사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근거이론

1. 서론

재난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생에 걸쳐 매우 낮은 빈도로 경험하게 되는 위협이기에,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위협에 대처하려 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번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재난발생 이전의 삶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유현정, 2008).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팀은 초유의 참사로 기록될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자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5회의 현장방문과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근거이론은 1960년대 실증주의에 대한 회의를 느낀 사회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질적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이미 알려져 있는 공기로부터의 연역보다 자료로부터의 귀납을 강조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을 연구하거나 잘 알려져 있다고 간주되는 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때문에 직업에 따라 침예하게 대립되는 태안 주민들의 입장과 관점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거이론적 접근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직업군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태안 주민들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보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태안 주민들의 삶의 질 회복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II. 연구의 배경

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개관

2007년 12월 7일 07시 15분에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예인선(삼성 T-5와 삼호 T-3)에 의해 예인 중이던 삼성중공업 소유의 콜리앳크레인을 적재한 바지선(crane barge Samsung No.1)이 강풍에 의해 삼성 T-5호 예인강선이 끊어지면서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 146,848 GT)에 충돌하여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하였다(김성수, 2008: 51; <http://www.iopcfund.org/hebeispirit.htm>; 한국일보, 2007. 12. 8: 1; 강원발전연구원, 2008: 2-3). 당시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209,000톤의 원유(crude oil)을 싣고(<http://www.iopcfund.org/hebeispirit.htm>) 2007년 12월 6일 19시 18분부터 사고 현장에 정박중이었다. 2007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이 최종적으로 밝힌 원유 유출량은 12,547kl로, 원유 유출량 12,547kl 가운데 두통과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황화수소, 벤젠, 머캡탄 등은 1.6%로 201kl를 차지하였다(이재은, 2008: 486-487).

정부에서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30분 해양수산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에 경비함정 12척, 방재선 3척을 투입, 사고선 주변에 1m 높이의 오일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오후 4시 현재 초속 10m 이상의 바람과 2~4m의 파도 때문에 오일펜스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가연성의 가스를 포함한 원유 특성상 질식이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어 방재선 접근이 곤란해 초기 방재작업이 어려웠다(한국일보, 2007. 12. 8: 1). 2008년 2월 4일 현재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 태안군의 경우 8개 읍·면 361개소 4,088ha와 서산시의 3개 읍·면 112개소 1,071ha가 피해를 입었고, 해수욕장은 4개면 15개소(태안군, 만리포, 천리포 등)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8; 김성수, 2008: 52).

2. 태안지역 주민의 생활과 쟁점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까지는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하여 인천, 서울 등 수도권지역과 연결되던 오지였으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논, 밭, 집 등이 주로 외지인들에게 팔려나가면서 대체로 농업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을 내의 간척지도 외

지인의 소유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덩달아 마을의 지가도 상승하였는데 논보다는 해변에 위치해 있는 밭의 지가 상승폭이 크다. 태안지역은 태안읍 중심으로 이원면, 원북면 등의 북부지역과, 소원면, 근흥면 등의 서부지역, 남면, 안면읍, 고남면 등의 남부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태안 앞바다에는 119개 도서에 유인도가 안면읍 4개, 근흥면 4개, 이원면 2개 등 10개 자리하고 있다. 2003년 개척된 안면도 꽃축제 이후 외지의 관광객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민박과 횃집, 식당, 낚시배 조업 등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생겼다. 특히 안면도는 2007년 한 해 동안만 기름유출사고 직전까지 관광숙박업소가 67개소가 더 늘어나는 등 365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숙박업소가 자리 잡은 지역이 되어 있다(통계청, 2008). 태안지역은 대체로 반농반어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은 주로 어선어업과 채취어업, 맨손어업, 식당, 숙박, 펜션 등 관광업,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는 법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재난 발생 직후에는 법적 손해배상과 환경보호에 관심이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들을 살펴보면, 법적 손해배상에서의 쟁점, 갈등관리상의 쟁점,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및 보건 분야의 쟁점, 피해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쟁점,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및 관리 전략상의 쟁점, 피해지역 관광산업 분야의 쟁점 등이 있다(이재은, 2008: 490-495). 이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이 발생한 이후의 선행연구가 법률적 관점, 재난관리 관점, 언론 관점, 사회복지 관점, 심리적 건강이나 보건 및 의료복지 관점, 지역정치적 관점, 갈등관리와 공동체 복원의 관점, 자원봉사자 운영체계 및 관리적 관점,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재난피해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살펴본다¹⁾.

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개요

근거이론 방법론은 사회학자인 Glaser & Strauss(1967)가 제안한 질적 연구의 한 방식으로, 기존의 계량중심의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연구방법으로, 면접 등을 통해 얻은 주어진 그대로의 경험적 자료들에 기초하여 연구대상에 대한 가설적 관계를 추출하는 귀납적 방식을 선호한다(최귀순, 2005; 유현정·이재은, 2009: 266). 대상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연구자는 자신의 선입견과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연구대상이 지닌 광범위한 맥락과 조건

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적 논의와 재난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김교현·권선중, 2008: 83-107; 김도균·이정림, 2008: 119-152; 김혜선, 2008: 45-63; 이시재, 2008: 109-144; 노진철, 2009: 49-88) 검토는 이재은·유현정(2010: 55-57)을 참조할 것.

을 포괄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근거이론의 분석법은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Strauss & Corbin에 의해 정리된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0, 1998)』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Strauss & Corbin(1998)은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이란 자료에 내재된 사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틀이지만 사건들 간의 연계관계의 구조가 연구 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은 현장 속에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며 개념을 형성한다. 연구자는 사건과 사건을 비교하여 개념을 생성하고, 생성된 개념을 다시 다음 사건과 비교분석하여 개념을 계속적으로 만들게 된다. 이렇듯 계속적인 비교분석의 과정을 통해 자료를 개념화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근거이론에서는 코딩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은 사전에 수집한 자료들을 코딩하는 것이다. 근거이론에서의 코딩은 크게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단계로 이루어진다(유현정·남수정, 2006; 유현정·이재은, 2008).

먼저, 개방코딩이란 인터뷰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해체하고 비교하여 개념화하며,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여 범주로 묶는 과정이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간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개방코딩 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다시 조합하여 범주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범주들간의 전후관계, 중재 및 맥락적 관계,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코딩이다.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하였고, 많은 근거이론 연구(김갑선, 2006; 김미옥, 김희성, 이민영, 2005)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된 근거이론의 전형적인 분석법인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팀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분석하고자 2008년 7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5차례 현장을 방문, 다양한 직업의 주민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1~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면접내용은 일부 사진촬영과 함께 녹취를 실시하였고, 녹취록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의 분석 절차를 원용하여 단계별로 접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간략한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자

심층면접일	성명	소속	직업
7월 14일	이O주	태안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가
	허O일	OO군 보건의료원	의료전문가
	권O태	충청남도 유류유출사고 대책지원본부	행정전문가

<표 1>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자(계속)

심층면접일	성명	소속	직업
8월 6일	김○창	학암포 횡집	식당업
	이○옥	학암포 OO모텔	숙박업
	김○옥	OO마을 사장	양식업
	정○영	태안군선주연합회	선주
8월 11일	최○목	태안군 비수산(관광)분야 비상대책위	펜션, 식당 운영
	최○복	만리포 소재 횡집	식당업
8월 25일	구○춘	태안군 소원면 OO리 어촌계	수산업
	이○경	태안군 소원면 OO리 어촌계	수산업
12월 12일	이○숙	태안군 원북면	맨손어업
	이○자	태안군 원북면	맨손어업

IV. 직업별 관점에서 본 태안 지역사회의 삶의 질

이 연구에서는 태안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가운데, 직업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바라보는 입장과 사고 후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직업별 관점에서 태안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일차적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태안지역 삶의 질을 구성하는 범주를 찾아내고, 둘째, 개방코딩을 통해 생성된 범주간에 서로 연합관계를 만들면서, 이렇게 생성된 범주들간의 전후관계, 중재 및 맥락적 관계,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 그리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축코딩의 과정을 실시하였다. 직업별로 살펴본 태안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어업인, 양식업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항리 해너마을 전복 양식업을 하는 김○옥 씨와 모항2리 어촌계장 구○춘 씨, 만리포(모항3리) 선주 정○영 씨, 의항2리 어촌계장 이○경 씨 등 어선어업인과 전복·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50여 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들로부터는 20개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그리고 이들 하위범주로부터는 더욱 추상화된 11개의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의 내용을 핵심범주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범주 1: 극심한 피해충격 ‘극심한 피해충격’의 핵심범주에는 ‘불확실성’과 ‘심리적 충격’의 하위범주가 있다. 어선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은 연안 생태계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일격에 폐사를 당한데서 오는 심리적 충격으로 불안해하였다.

핵심범주 2: 대응의 불안전성 ‘대응의 불안전성’의 핵심범주에는 ‘상황과악의 불충분성’과 ‘방재의 미비’라는 하위범주가 있다. 어선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은 방재에 대한 해경의 근거 없는 장담과 안이한 대응,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재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맥없이 바라봐야만 했다고 하소연한다. 방재작업 이후에도 갯벌, 돌더미에서 여전히 기름이 흘러나오고 해수욕장을 조기에 개방하기 위해 자연방재로 돌린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핵심범주 3: 부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의 핵심범주에는 ‘배분에 따른 불신’과 ‘무책임성에 대한 불만’의 하위범주가 있다. 어선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은 정부가 긴급생계지원비를 피해의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태안군이 애매한 배분기준으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대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생계지원비는 피해보상이든 제일 큰 몫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핵심범주 4: 경제적 고통 ‘경제적 고통’의 하위범주로는 ‘소득의 불안정’과 ‘삶의 질 하락’이 있다. 양식업자들은 12월 기름유출사고 이후 굴, 전복, 바지락 등의 폐사로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어선어업인들은 그래도 5월부터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힘들어 한다. 그들에겐 삶의 질도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된다.

핵심범주 5: 극심한 대립 ‘극심한 대립’의 핵심범주에는 ‘방재 및 배상 둘러싼 갈등’과 ‘지역 내외 갈등’이라는 하위범주가 있다. 어선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이 보기에 마을 내에서는 정부든 삼성이든 지원에서 차이가 나가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한 마디 말실수에 주먹이 오가고 살인날 정도의 살벌함이 느껴진다. 그들은 어촌계장들이 더 많은 생계비 몫을 챙기려고 이웃마을과 갈등을 벌이는 것이나 삼성과의 자매결연을 둘러싸고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지파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파 간에 일어나는 극심한 대립을 우려한다.

핵심범주 6: 상호불신 ‘상호불신’의 핵심범주는 ‘유언비어’와 ‘일하는 자에 대한 불신’을 하위범주로 갖는다. 어선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은 이장이나 어촌계장, 수협, 피해대책위원회의 임원이면 뒷돈이 생길 것으로 떠드는 말들이나 긴급 생계비 배분 및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그들이 이권을 챙겼다는 소문을 우려한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유언비어와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장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간의 상호불신을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

핵심범주 7: 신뢰(결여-회복) ‘신뢰’의 하위범주로는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주민들간 신뢰’가 있다. 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은 주민들의 즉각적 해결요구와 정부의 절차 존중 간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 무허가 양식장이나 무자료 상거래의 관행이 극복되는데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서 주민들간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

핵심범주 8: 이해관계(대립-조화) ‘이해관계’의 핵심범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제적 배상’의 하위범주를 가진다. 그들은 바다축제 행사는 실질적으로 관광업 분야에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바다의 복원만이 전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의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반한 IOPC 사정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진 후에 손실액과 배상액 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핵심범주 9: 자발성 ‘자발성’의 핵심범주에는 ‘생업 재개의 자발성’이 하위범주로 있다. 양식업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가사리 제거, 인위적 미역 투여 등 양식장을 복원하기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어선어업인들은 5월부터 선박조업을 재개하고 있다.

핵심범주 10: 이해의 조정 ‘이해의 조정’의 핵심범주에는 ‘해결의 집단성’이 하위범주로 있다. 어선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단체행동에 돌입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려던 환경운동연합의 행사를 무산시키는 등 파위를 이용한 실력행사를 하고 있고, 피해배상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피해대책위원회들을 설립하고 있다. 관건은 이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핵심범주 11: 생계의 보장성 확보 ‘생계의 보장성 확보’의 핵심범주에는 ‘생계수단 모색’과 ‘복원 노력의 지속성’이 하위범주로 있다. 어선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은 생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것과 양식장 허가 지역의 확장을 요청한다.

<표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어선어업·양식업자의 반응분석

패러다임	핵심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극심한 피해충격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망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미래가 없다. 끝이 보여야 확신을 갖고 뭐를 하는 거지 언제나 회복될는지 기약할 수 없음
		심리적 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름이 너울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남 한꺼번에 폐사를 당한데서 오는 충격 중요하고 한번도 거두지 못하고 사고 맞은데서 오는 의욕상실 안개가 끼면 지나가는 유조선이 또 언제 깨질지 몰라서 항상 불안.
맥락	대응의 불안전성	상황파악의 불충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동대응시 해경은 완전봉쇄를 해서 걱정 없다는 근거없는 장담을 함 해경의 안이한 초동대응과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사고 피해를 키움 초동대응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맥없이 바라만 봄 피해의 조사 자체가 정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음
		방재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재가 철저하지 못하여 아직 갯벌, 돌더미에서 기름이 나옴 해수욕장 개장한다고 방재중단하고 자연방재로 돌린 것에 대한 불안
	부정적 반응	배분에 따른 불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긴급생계지원비를 피해의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태안군이 애매한 배분기준으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는 것은 부당
		무책임성에 대한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 생계지원비가 배분기준 없이 중앙정부에서 충남도로, 충남도에서 태안군으로, 태안군에서 각 리 단위로 내려보내짐. 삼성이 검증된 부분에 대한 책임 없이 면피용으로 피해지역과 자매결연 체결

<표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어선어업·양식업자의 반응분석(계속)

패러다임	핵심범주	하위범주	개념
중심 현상	경제적 고충	소득의 불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사고후 굴, 전복, 바지락 등 폐사로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 5월 조업 재개했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수입의 절대적 감소 생업의 중단으로 인한 소득원 부재로 방재작업에 참여
		삶의 질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빚을 얻어 살고 있다 모든 지출이 동결
	극심한 대립	방재 및 배상 둘러싼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방재와 자연방재 간 선택을 둘러싼 갈등 방재가 먼저 이루어져 조업이 일찍 시작된 곳과 방재지연으로 조업을 못하는 곳간의 소득획득 기회의 불평등을 둘러싼 갈등 생계비 배분과 방재작업, 공공근로의 참여를 둘러싼 피해지역 어민과 농민들 간 갈등
		지역내외 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든 삼성이든 지원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면 마을 내 패싸움, 한 마디 말실수에 주먹을 세우기도 한다. 살인날 정도의 살벌함. 어촌계장들이 더 많은 생계비 몫을 챙기려고 이웃마을과 갈등. 삼성과의 자매결연을 둘러싼 지지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
	상호불신	유언비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장이나 어촌계장, 수협, 피해대책위원회의 임원이면 뒷돈이 생길 것으로 인식들을 함 생계비 배분 및 축재행사와 관련해 이권을 챙겼다는 소문
		일하는 자에 대한 불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비 및 후원금 배분과정에서 이장에 대한 불신 삼성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장에 대한 불신 누구를 믿고 의지해서 살아나갈지 불안
중재적 조건	신뢰 (결여 -회복)	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의 즉각적 해결 요구와 정부의 절차 존중 간의 조화 무허가 양식장, 무자료 상거래 관행 불식
		주민들간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네 주민들간 공동체 의식 회복
	이해관계 (대립 -조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경제적 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축제 행사는 실질적으로 관광업 분야에만 혜택이 돌아감. 바다의 복원만이 전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손실의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반한 IOPC 사정에 의한 배상 손실액과 배상액 간 차액은 정부가 보상
상호작용 전략	자발성	생업재개의 자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사리 제거, 인위적 미역 투여 등 양식장 복원 노력 5월부터 선박조업 재개
	이해의 조정	해결의 집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주연합회 등 이해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단체행동 돌입 파워를 이용한 실력행사(환경운동연합의 행사 무산 등) 배상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피해대책위원회 설립
결과	생계의 보장성 확보	생계수단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업의 기반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민박업의 허가요청
		복원 노력의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게끔 빨리 생업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 양식장 허가 지역의 확장

2. 숙박업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후 숙박업자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ampo OO모텔의 이O옥씨, 펜션 및 식당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 학ampo의 최O목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4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들로부터는 19개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그리고 이들 하위범주로부터는 더욱 추상화된 8개의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의 내용을 핵심범주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범주 1: 환경변화에 의존적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숙박업은 태안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숙박업의 특성상 어느 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냐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고, 손님이 자발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급속한 숙박업소의 증가는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영세한 사업자들까지도 숙박업에 참여하도록 부추기에 되었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 사고 후 대부분의 관광객이 단절됨에 따라 영세한 숙박업자들은 손 쓸 방법도 없이 소극적으로 어이없는 사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모텔이라 민박과 같은 영세 숙박업자들은 대부분 연령도 높아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외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부 도움을 수동적으로 희망하는 무력한 상태에 봉착하고 있었다.

핵심범주 2: 불완전 복구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숙박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불안전 복구라 할 수 있다. 피해 상황을 조사해 갔지만 이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기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8월 성수기를 맞아 무리하게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서 과연 방재작업의 중단이 긍정적으로 기능하게 될지, 혹은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는 심리적인 측면의 우려로만 끝나지 않고 숙박업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핵심범주 3: 기대와 걱정 불완전 복구와 함께 중요한 맥락을 구성하는 핵심범주로는 기대와 걱정을 들 수 있다. 방재작업의 중단과 함께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일단은 성수기니만큼 빨리 개장해서 손님이 와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긍정적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나마 사고 후 생계의 수단이 되어주었던 방재작업이 중단됨에 따라 기대했던 만큼 손님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공공근로를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대부분 영세한 숙박업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객이 끊겨버린 상태에서 수입원은 공공근로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해수욕장 개장과 공공근로의 중단은 기대와 함께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다.

핵심범주 4: 생활고 다른 직업의 지역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세한 숙박업자들의 생활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에 반응하는 숙박업자의 인터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범주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사고 후 겨울 동안 손님이 거의 들지 않았으며, 7월 들어서도 주말에 방 1, 2개 손님이 드는 것이 고작이었다. 가끔씩 자원봉사자들이나 관광객들이 태안을 찾아오긴 했지만 숙박을 하는 일은 많지 않고 대부분 당일로 돌아감에 따라 숙박업자들은 거의 수입이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였다. 어쩌다 찾아온 관광객들도 대부분 유명 해수욕장의 대형 펜션을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영세한 숙박업자들은 사고 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득의 단절로 인하여 융자금 이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이었고, 전기세와 같은 공공요금도 체납되어 있었다. 생존을 위한 최

소한의 지출만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있었으며, 생계비 지원금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그 조차도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하루하루의 생활이 매우 고된 실정이었다.

핵심범주 5: 불안정한 정서 숙박업자들은 손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서 하루 종일 개점 휴업의 상태에 놓여 있다 보면 심리적으로 매우 무력해지는 부정적 정서에 봉착하게 된다. 또한 언제 바다가 깨끗해져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게 될는지 예측할 수 있고, 방재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를 갖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매우 컸으며, 생계지원금에 가장 큰 희망을 갖게 되다 보니 배분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는 이웃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숙박업자의 일상생활은 매우 불안정한 정서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핵심범주 6: 희망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숙박업자들은 크고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우선은 피해보상에 대한 기대였다. 조사가 이루어졌으니 곧 배상금이 내려올 것이란 기대였다. 현재의 상태에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배상금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금액이 책정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다음은 방제작업 수당이다. 방제작업을 하는 동안 여자는 일당 6만원을, 남자는 7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영세한 숙박업자의 경우 일당 6, 7만원은 그리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때문에 손님이 줄어 수입은 없지만 방제작업비만 제대로 지급된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며 또 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가면 그것만으로도 내년을 기약할 수 있어 희망이 생긴다고 하였다.

핵심범주 7: 동종업자간 협동 태안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많이 목격할 수 있었던 공통점은, 배상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에서 동종업자간 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하면 배분과정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거나 혹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동종업자들끼리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는 타업종 혹은 타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숙박업자의 경우에도 동종업자간 협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숙박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민에 비해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고 그 정도도 미약하기 때문에 어민에 대항하기 보다는, 자신들보다 피해가 적다고 생각되는 농민들에게 지원금이 많이 배분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었다. 또한 농민들에게조차 균등하게 배분되는 생계비 지원금이나, 농민들이 방제작업에 참여하면서 동일한 수당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동종업자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 8: 기다림 숙박업자들은 사업의 특성상 유류유출 사고에 대처하는 방식이 타 업종에 비해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관광객이 주요 수입원이 되는 이들에게 있어 관광업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다오염의 완전한 제거 및 태안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을 원상복귀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배상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공공근로 등을 통해서라도 생계유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앞서고 있었다. 이러한 이들의 반응은 기다림이라는 수동적 형태로 귀결되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완전한 방재

를 통해 태안의 관광업이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더불어 공공근로를 끝내고 본래의 생업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표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숙박업자의 반응분석

패러다임	핵심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환경변화에 의존적	소극적 사업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님이 와주셔야 하는데 손님이 안오면 할 수가 없음 바다가 빨리 깨끗해져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음. 이 나이에 다른 뭘 찾을 수 없음. (펜션을) 팔수만 있다면 팔고 싶음
		외생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명 해수욕장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곳은 격차가 매우 큼 바다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피해와 배상기준이 다름 사업장규모(펜션, 모텔, 민박등)에 따른 차이 큼
맥락	불완전 복구	피해상황의 불충분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는 해 갔는데 (이후 진행과정)어떻게 되는 건지 모름 등너머마다 (배상금)이 다르는데 아직 만나와서 모름
		방재작업의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 돌더미에는 기름이 나옴 해수욕장 개장하면 손님 오는데 할 수가 없음.
	기대와 걱정	해수욕장 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수기니까 빨리 개장해서 손님이 와주길 바람 손님이 이렇게 안오면 어떻게 할지 난감함
		공공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근로라도 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어 다행임 손님이 와야 하는데 공공근로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
중심현상	생활고	소득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사고후 겨울동안 손님 전혀 없음 7월들어서야 주말에 방 1, 2개 참. 손님이 와도 당일로 왔다 감 예약전화 했다가도 얼마라고 하면 끊음
		지출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세 15만원도 부담되는 수준 모든 지출의 동결 융자금 이자 못냄
		생계비지원의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름전까지 방재작업했는데 1, 2월분 2달치를 7월에 받음 배상금 조사는 해갔지만 아직 받지 못했음
	불안정한 정서	무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님도 없고,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음. 개정후업의 상태 막막하고 따분함
		불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다가 언제나 깨끗해져서 손님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알수없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웃간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 싸움은 아니어도 작은 싸움이 계속됨 군, 리 간 화합이 깨짐 인심이 사라지고 서로 믿지 못함 바닷가 사람들 위주로 배상과 생계지원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눠먹기식이 되었음
중재적 조건	희망	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를 해 갔으니까... 많이 나왔으면 좋겠음.
		방재작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자는 일당 6만원, 남자는 7만원 경운기, 트랙터 사용비
		손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님들이) 바다가 생각보다 깨끗하다고 함 올해 다녀가신 자원봉사자들이 내년엔 다시 와 주기 바람
상호작용 전략	동종업자 간 협동	동병상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업하는 사람은 다 한마음 우리끼리 갈등은 없음.
		배타적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너머 농사짓는 분들이 차등지원한다고 불만있음. 피해가 다르니 어쩔 수 없음.
결과	기대심	완전한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한 방재 태안지역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생업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근로를 끝내고 본연의 생업으로 돌아가기 바람

3. 식당업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후 식당업자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학암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O장씨, 만리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O복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4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들로부터는 21개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그리고 이들 하위범주로부터는 더욱 추상화된 8개의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의 내용을 핵심범주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범주 1: 환경변화에 의존적 식당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도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보러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바다가 오염되었다는 것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당업자들도 바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생활해 왔으며, 식당의 위치 등이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외생적 한계로 작용하여 왔다. 또한 한명의 손님을 위해서라도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주로 회를 판매하는 해수욕장 주변의 식당의 경우는 회 판매를 위한 전기세 등 영업비용이 타업종보다 커서 관광객 감소로 인한 손실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핵심범주 2: 방재작업의 수혜자 유류유출 사고 후 방재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업종이 식당업이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일시적으로 특수를 누릴 수 있었다. 방재작업이 중단된 이후에는 공공근로를 통해 최소한의 일당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한 동안은 타업종에 비해 양호한 형편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핵심범주 3: 생계불안 식당업자가 방재작업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기도 하였지만 역시 사고에 대처하는 이들의 반응의 중심범주는 생계불안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도 편차가 심해서 만리포와 같은 유명 해수욕장 주변의 식당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혜를 입었지만, 학암포는 큰 혜택을 입지 못했으며, 사고 이후 관광객의 발길은 거의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조차 내지 못하고 체납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종업원 월급도 방재작업 수당을 모아 주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일용직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사업을 유지하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핵심범주 4: 사업불안정 식당업자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특이한 것은, 공공근로 인해 지역경제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일용직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일당 6, 7만원이면 식당의 하루 일당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 일용직 인력들이 식당보다 공공근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꾸준히 일을 맡아 해 줄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이는 식당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어렵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식당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식당업자의 삶의 질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심범주 5: 공공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이후 주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된 공공근로가 사업 예산 배분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간 공동체 의식을 해체하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식당업자들은 공공근로로 인해 주민과 정부간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즉각적인 수당지급을 요구하였다.

핵심범주 6: 다양한 행사 태안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식당업자들의 반응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만리포와 같이 인지도가 높은 지역에 행사가 주로 몰리다보니 같은 식당업자라 하더라도 소외된 지역의 식당업자들은 행사 자체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행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예산을 현금으로 나누줄 것을 요망하였다. 반면에 만리포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많이 열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에게 홍보효과를 제공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행사 기획과정에서 지역별 피해대책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 집행부와 일반 주민들간의 불신과 반목도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핵심범주 7: 사업의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식당업자의 상호작용전략은 사업에 대한 의지를 통해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되었다. 즉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입장과, 체념과 포기의 상태에서 폐업을 고려하는 입장으로 구분되었다. 어렵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만리포 주변의,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식당업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학암포의 영세한 식당업자의 경우는 공공근로 수당이나 생계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수준으로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폐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 8: 요구와 노력 사고에 대처하는 식당업자의 반응의 결과는 다양한 요구와 노력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지역홍보를 통해 관광업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관광업이 태안의 주된 산업이며, 식당업도 관광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역홍보에 발맞추어 주민들도 스스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관광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바다의 완전복구가 필수적이며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방재작업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터넷이나 전화요금 등을 감면해 주고, 융자금의 이자납입 또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아울러 정기적인 건강상태의 체크와 심리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표 4>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식당업자의 반응분석

패러다임	핵심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환경변화에 의존적	바다에의 절대적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후 관광업 활성화에 따라 식당들도 많은 투자를 함 바다를 보러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에 오염되면 식당은 존재자체가 안 됨.
		외생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명 해수욕장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곳의 격차 큼 지역간 오염정도가 다르고 피해규모도 다름

〈표 4〉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식당업자의 반응분석(계속)

패러다임	핵심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조건	환경변화에 의존적	식당업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명의 손님을 위해서라도 영업을 해야 함 ◦ 회 판매를 위한 전기세 등 영업비용이 타업종보다 큼
맥락	방재작업의 수혜자	자원봉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제공 ◦ 비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음
		방재작업의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를 통해 최소한의 일당벌이 참여 ◦ 해수욕장 개장하면 손님 오는데 할 수가 없음.
중심현상	생계불안	소득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전기요금이 밀려있는 정도 ◦ 폐업고려중 ◦ 종업원 월급을 방재 수당으로 주어야 하는 형편
		생계지원의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전까지 방재작업했는데 약속한 인건비의 75%만을 받음 ◦ 소득세 신고 불충분 때문에 배상금을 제대로 못받을 것 같아 불안 ◦ 배상문제 추진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간에 갈등발생 ◦ 바닷길 하는 사람들과 육지에 농업하는 사람간 차등이 없음
		인력고용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 때문에 일용직 인력 구하기 어려움 ◦ 외지인을 쓰다보니 서비스 질 떨어져 영업에 애로 겪음
	사업불안정	사업비용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인건비로 인한 지역경제의 인건비 상승으로 타산이 맞지 않음 ◦ 유효고객수 확보실패로 인한 사업비용의 증가
		미래에 대한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에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을지 확신없음 ◦ 자연방재를 신뢰하기 어려움 ◦ 고객의 식품안전을 장담할 수 없음
		서비스질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의 질저하로 인한 식당서비스 질 저하 ◦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어 서비스 질 저하됨
중재적조건	공공근로	갈등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근로사업 예산 배분의 형평성 어긋남 ◦ 동네 주민들간 공동체 의식의 해체
		주민과 정부간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즉각적인 해결 요구와 정부의 절차 존중 간의 괴리
	다양한 행사	이해의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에서 개최한 만리포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있을시 식당업이 혜택을 입음. ◦ 만리포만 태안이고, 해수욕장이 아닌데 인지도가 있으니 만리포만 혜택을 입음. ◦ (비수혜지역에서는) 행사를 위한 예산을 현금으로 나눠주기 바람.
		업종별 지역별 대책위간 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과 관련된 업종별, 지역별 6개 피해대책위원회의 이해관계 대립 ◦ 집행부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불신과 반목
상호작용 전략	사업의지	더 열심히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
		체념과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의 고려 ◦ 공공근로 혹은 배상에만 기대를 걸음
결과	요구와 노력	지역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한 요구 ◦ 지역사회 발전에 위한 공동노력
		지속적 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 방재 필요
		경제적 지원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전화요금 등 감면 ◦ 융자금 이자율 감면
		건강체크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건강상태 체크 ◦ 심리상담 요망

4. 맨손어업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후 숙박업자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복면에 거주하는 맨손어업인 이O숙씨, 이O자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47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들로부터는 20개의 하위범주가 추출되었다. 그리고 이들 하위범주로부터는 더욱 추상화된 9개의 핵심범주가 도출되었다. 개방코딩의 내용을 핵심범주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범주 1: 영세한 삶 맨손어업인들은 대부분 연 1천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스스로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유류유출 사고 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세력화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체념하고 있었다. 사고 전 이들의 하루벌이는 많으면 10만원, 적게는 6, 7만원 수준이 되었는데, 이는 큰 돈은 아니지만 자식들 공부시키고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이 가능한 액수였기 때문에 큰 불만없이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특별히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지만 바다에만 나가면 언제든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핵심범주 2: 방재작업 하루 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맨손어업인들은 그나마 방재작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이미 기름이 유출된 상황에서 책임과 배상의 형평 등의 문제보다는 당장 방재작업에 뛰어들어서 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더욱 관심을 갖고 있었고, 방재작업이 꾸준히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바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바다를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지역에도 자신들이 들어가 가장 많이 기름을 퍼냈다고 이야기했다.

핵심범주 3: 경제적 어려움 맨손어업인들이 금번 사고로 인해 겪는 어려움의 가장 중심적인 범주는 크게 경제적 어려움, 나빠진 건강, 정신적 충격의 세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은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생계지원금 300만원으로 6개월 이상을 의지해 생활해 오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어버린 방재작업은 매우 고되고 위험한 일이었다. 그나마 노인들은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배려하고 있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발줄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위험한 암벽이나 부두 밑 등에서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바로바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학비 등 현금으로 목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핵심범주 4: 나빠진 건강 방재작업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맨손어업인들은 그만큼 기름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 건강에 많은 이상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시력이 1.0정도로 매우 좋았는데 이O숙씨는 사고 이후 눈에 기름이 조금 들어가 바로 물로 닦아냈지만 결국 시력이 0.4로 떨어져버리고 말았다. 또 대부분의 맨손어업인들이 메스꺼움과 속 울렁거림,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방재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누구보다도 바다

를 가족처럼 생각해 왔던 심리적 영향도 컸을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해 방재작업에 빠지면 그만큼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강상의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계속 방재작업에 참여해왔다고 하였다.

핵심범주 5: 정신적 충격 사고 직후 맨손어업인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특히 심각했다. 이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즉 자식이나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날 아침 까맣게 변해버린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다. 굴과 게, 바지락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일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마저 잃게 만들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고 눈물만 흘렸고, 이제는 모두 죽었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핵심범주 6: 공공근로 맨손어업인들은 기름유출 사고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빠른 속도로 삶에 복귀하였고, 생계유지를 위해 방재작업 및 공공근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공공근로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일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다른 맨손어업인들과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며 심리적 고통을 함께 어루만져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각기 자신의 삶에 바빠 만날 수 없었던 이웃들을 만나 함께 작업을 하고, 도시락을 먹는 동안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의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핵심범주 7: 생활의 변화 기본적으로 영세한 삶을 꾸려왔던 맨손어업인들은 기름유출 사고 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고 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남자 대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원해 군입대를 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심야전기를 이용해 보일러를 틀지 않고 전기장판에 의존해 생활비를 줄이고 있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가까운 친지에게 융통해 사용하고 있었고, 이때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빌린 돈의 상황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많은 맨손어업인들이 방재작업 수당이나 생계 지원금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급전을 빌려쓰고 있었다.

핵심범주 8: 수동적 기대 맨손어업인은 태안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며 수동적인 기대를 갖는 등 타직종의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격렬한 분노나 이익의 주장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소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어차피 나라가 국민을 모두 먹여살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공공근로라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제 겨울이 오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소 체념과 포기를 통해 심리적 충격을 완충시키고 있었다.

핵심범주 9: 새로운 희망 맨손어업인들은 불안과 분노의 감정보다는 벌어진 불행한 사태에 적응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한편으로 새로운 희망 또한 다른 직종의 주민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은 삶에 대한 소박한 기대와 철학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혀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방재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

신들의 삶도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때까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동하여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을 세우는 등 소박하지만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표 5>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맨손어업인의 반응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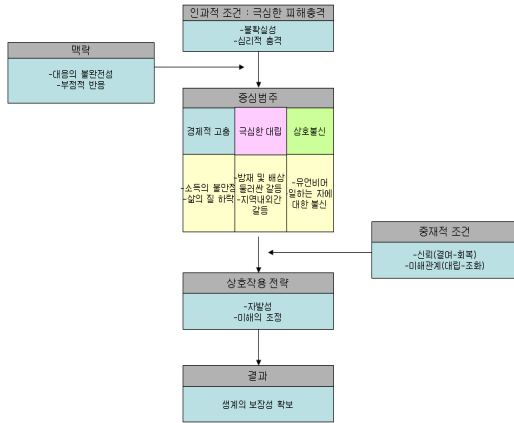
패러다임	핵심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과적 조건	영세한 삶	가진 것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 하나만 보고 살아옴 ◦ 연수입 1천만원 미만
		힘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게 없음 ◦ 힘이 없으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소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전 하루벌이 7, 8만원으로 만족하며 살았음 ◦ 굴따서 애들 용돈도 주고 우리도 먹고 그렇게 살았지
맥락	방재작업	생존을 위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수당이 유일한 수입원 ◦ 방재라도 매일 하면 좋겠음.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름은 우리가 제일 많이 퍼냄 ◦ 자원봉사자나 다른 사람들은 위험지역엔 들어가지 못함
중심 현상	경제적 어려움	생업의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지원금 300만원 나온거에 의존해 6개월이상 지냄 ◦ 생업은 중단됨. 굴을 전혀 채취할 수 없음.
		고된 방재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사람은 부두 밑, 발줄타고 가는곳 ◦ 노인들은 발취가 좋은데로...
		현금순환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에는 매일매일 현금이 들어왔으나 이제는 일도 없을뿐만 아니라 수당지급이 미뤄짐 ◦ 학비 등 현금지출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 생김
	나빠진 건강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력이 0.4까지 떨어짐 ◦ 구역질 나고 속이 좋지 않음
		건강돌볼 여유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방재할 때 기름냄새를 너무 많이 맡음 ◦ 바다가 시꺼먼데 건강생각할 겨를 없었음. ◦ 병원 갔다오려면 하루 (방재작업)수당을 포기해야 함
	정신적 충격	바다의 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터전의 훼손 ◦ 가족처럼 생각했던 바다
희망을 잃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까맣게 밀려든 기름,바지락들이 다 죽음. ◦ 발이 떨어지지 않고 눈물만 남 ◦ 이제는 죽었다는 생각뿐 	
중재적 조건	공공근로	생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가 회복될 때까지 공공근로가 유지되길 희망함 ◦ 공공근로가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함
		동병상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를 짜서 함께 근로 다니며 힘이 됨 ◦ 못보던 사람들도 만나게 돼서 서로 위로해줌 ◦ 도시락 싸와서 먹고 이장님이 커피도 싸와서 주심
	생활의 변화	긴축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대학생은 군입대를 함 ◦ 보일러 틀지 않고 전기장판만 이용 ◦ 집집마다 심야전기로 바꿈
		신용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운 친지에게 급전 빌림. ◦ 신용이 가장 중요함 ◦ 절대로 신용을 잃어서는 안됨. ◦ 생계지원금 등에 대한 기대로 미리 돈을 빌려씀

〈표 5〉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맨손어업인의 반응분석(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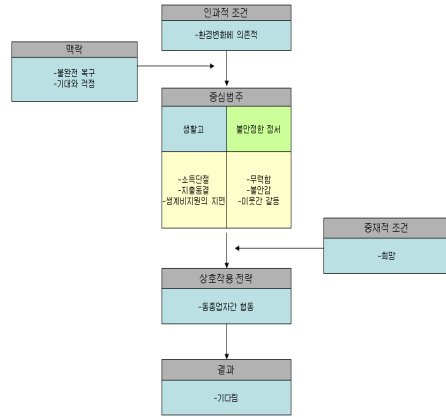
패러다임	핵심범주	하위범주	개념
상호작용 전략	수동적 기대	정부입장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에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면 공공근로라도 많이 하게 해 줄 것임 ° 나라가 다 먹여살려줄 수는 없는 일
		체념과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 겨울인데 뭐 할 수 있겠는가 ° 공공근로 혹은 배상에만 기대를 걸음
결과	새로운 희망	새생명의 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역이 자라는 걸 보면 아직 다 죽지는 않았음. ° 굴도 살았고, 게나 고동도 아직 살아 있음. ° 처음에 비해 이만큼 바다가 좋아졌으니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임
		협동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끼리 함께 된장, 고추장이라도 만들어 팔아볼까 함 ° 공공근로 마지막 날이라고 삼겹살 함께 구워먹음

이상과 같이 태안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직업에 따라 다양한 범주와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분해했던 자료들을 다시 조합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즉 축코딩은 관찰대상인 현상이 왜 혹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현상 때문에 무슨 결과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방코딩을 통해 발견된 범주들간의 관계가 점차 드러나게 된다. <그림 1>부터 <그림 4>까지는 태안 지역주민들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사고 이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를 직업에 따라 패러다임 모형에 입각하여 핵심범주들간의 상호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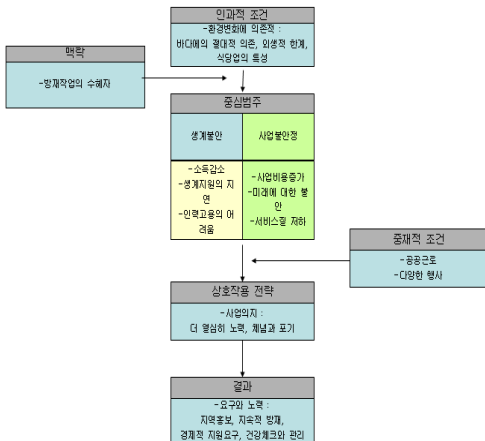
중심범주란 여기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복구 및 피해배상 과정에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지역 사회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의 핵심은 중심범주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제적 고충’, ‘극심한 대립’, ‘상호불신’(어선어업, 양식업자), ‘생활고’, ‘불안정한 정서’(숙박업자), ‘생계불안’, ‘사업불안정’(식당업자), ‘경제적 어려움’, ‘나빠진 건강’, ‘정신적 충격’(맨손어업인) 등으로 나타났다. 슈트라우스와 코빈에 따르면, 중심범주는 근거이론 방법론에 입각한 패러다임 분석을 통해 얻은 모든 내용을 축약하는 것으로서 기름유출사고의 복구 및 피해배상 과정에서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변수들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심리적 충격’, ‘주민 갈등’과 연관된다. 즉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고 이후 복구과정과 피해보상과정에서 피해주민들은 여러 가지 인과적 조건과 맥락으로부터 삶의 질과 관련하여 불만을 생성하고 있고, 이 불만을 다시 각종 갈등을 통해 증폭 혹은 감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극심한 피해충격이라는 조건에서 정부의 초동대응의 불완전성과 복구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고충을 가장 큰 문제로 관찰하고 있고, 이 경제적 고충이 다시 극심한 대립과 상호불신의 동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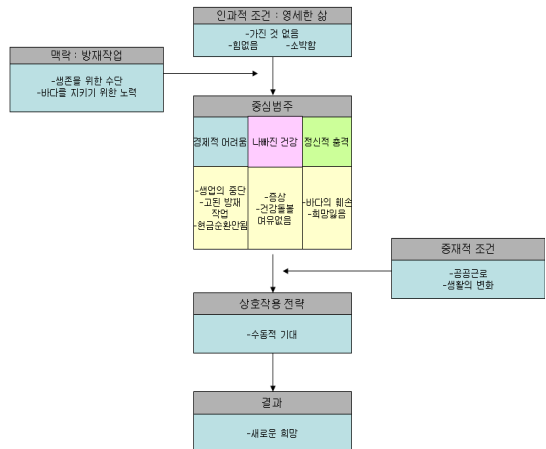
<그림 1> 어선어업인, 양식업자의 삶의 질



<그림 2> 숙박업자의 삶의 질



<그림 3> 식당업자의 삶의 질



<그림 4> 맨손어업인의 삶의 질

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가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 건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체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건강이상”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태안 지역 주민들은 사고 직후부터 방재작업에 참여해 왔으며, 맨손어업인이나 영세사업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위험에 노출되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이상증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측면의 건강상태도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 무력감, 분노,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의 삶의 질을 살펴보면, 소득의 단절로 인한 절대적인 경제적 생활수준의 추락, 이로 인한 소비지출의 동결에서 오는 생활모습의 변화와 고충이 두드러진다. 사고 발생 후 방재작업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하고,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을 때에는 만리포 등과 같은 유명 해수욕장 근처의 숙박업소나 식당이 일부 반사이익을 누리기도 했지만, 절대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사고로 인해 생업이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생계를 위해 대부분의 피해지역 주민들은 방재작업과 공공근로에 매달렸고, 생계비 지원의 배분과정에서 심한 이웃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삶의 질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주민간 갈등이다. 갈등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배상 및 보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든 주민들이 형평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즉 재난 발생 및 주민 간 갈등의 조정 모두에서 정부실패가 발생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빠르게 붕괴되었다.

넷째, 생활 측면에서의 삶의 질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전방위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주민들 대부분은 현재의 삶에서 질(quality)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고 이후 생활수준이 사고 이전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였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주된 원인은 경제 문제였다.

다섯째,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미래와 관련된 삶의 질의 경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다양한 인지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우선 기존 자산구조가 좀 더 안정적이었던 어선 어업인이나 식당업 등의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에 영세한 식당업자 또는 숙박업자의 경우에는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이미 많은 좌절 속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 반면에 가장 우려했던 맨손어업인은 오히려 소박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이들이 더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 빈곤의 고통을 견뎌내면서 앞으로는 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신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망이 어두운 집단으로는 양식업자를 들 수 있다. 양식업은 기본적으로 바다오염의 완전 제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것을 잃었으나, 다양한 지원사업에서도 수혜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서 양식업자들의 상실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들은 자력구제를 통해서라도 바다의 완전방재를 추구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 관료나 이웃 간에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태안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대부분 충분한 피해보상에 집중되고 있지만 직업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어선 어업인들은 기존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

았기 때문에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또한 커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력화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태안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았던 영세한 식당업자나 맨손업자 등은 배상과 함께 안정적인 생계지원이 함께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유류유출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태안경제의 침체로 인해 농산물까지 판로에 영향을 받은 농민들도 충분한 배상을 주장하였다. 숙박업자나 식당업자와 같이 관광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민들은 지역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바다의 지속적인 복원을 통해 관광산업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반면에 양식업자들은 완전방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생업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쪽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완전방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김교현·권선중.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태안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ECO: 환경사회학연구. 12(1): 83-107.
- 김도균·이정립.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의한 섬 주민들의 삶의 변화: 태안군 가의도를 중심으로. ECO: 환경사회학연구. 12(2): 119-152.
- 김혜선. 2008. 기름유출지역의 사회복지지원체계 방향: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주민의 복지욕구(2008. 9. 6,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한국정책포럼,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재민사랑본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주최, 희망제작소 대회의실). 45-68.
- 강원발전연구원. 2008. 2007년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교훈. 정책브리프 제22호.
- 김갑선. 2006.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연구 경향. 정보관리학회지 22(4): 235-254.
- 김미옥·김희성·이민영. 2005. 장애인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 성인기 이전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7(1): 31-60.
- 김성수. 2008. 해양 유류오염의 기존 배상 사례 검토: 씨프린스호 및 에리카호 사건을 중심으로. 유류유출피해지역의 미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2008. 2. 13, 충청남도·태안군 등 우리 바다 살리기 제2차 세미나 발표논문집). 51-80.
- 노진철. 2009. 고도 불확실성의 재난상황에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인지와 소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ECO: 환경사회학연구. 13(1): 49-88.
- 소방방재청.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 관련 점검자료.유현정. 2008. 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 전략. 제2차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학술

세미나 자료집.

- 유현정·남수정. 2006. 아나바다 사이트 참여자의 비윤리적 행동과 반응양식: 근거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44(12): 189-201.
- 유현정·이재은. 2008.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본 이재민의 반응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2): 97-118.
- 유현정·이재은. 2009. 재난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반응분석: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5): 265-276.
- 이시재.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영향 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12(1): 109-144.
- 이재은.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관리 분석: 피드포워드 통제에 근거한 전략적 통제 접근법의 적용.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479-505.
- 이재은·유현정. 2010.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6(2): 51-75.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 유류유출사고 수습상황보고(2008.2.5(화). 06:00).
- 최귀순. 2005. Strauss와 Glaser의 근거이론방법론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4(1): 82-90.
- 통계청. 2008.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일보. 2007. 12. 8.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서해안 초비상.
- Glaser, Barney G. & Anselm L. Strauss.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trauss, Anselm & Juliet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Sage Publication.
- Strauss, Anselm & Juliet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i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俞炫汀: 성균관대학교에서 가정학 박사(소비자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델: 20, 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2001), 현재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세부 전공분야는 소비자행동, 소비자교육 및 정책 등이며,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소비자투자와 보험(공저, 2006),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가지 시선(공저, 2009) 등의 저서와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분석-서울과 상해소비자를 중심으로”(2008),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재난관리서비스의 개선 방안”(2008)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yoohj@chungbuk.ac.kr).

李在恩: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

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2000),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위기관리, 조직이론, 정책집행론 등이며, 시민참여와 거버넌스(공저, 2009) 등의 저서와 “국가갈등관리의 효율화 방안”(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실증 분석”(공저, 2009), “Global Governance and Social Capital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2010) 등이 있다(jeunlee@chungbuk.ac.kr).

투 고 일: 2010년 8월 18일

수 정 일: 2010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3일